

2021년 1월 10일

국가형제회장의 글

사목적 독창성에 대한 부르심

by Jan Parker (젠 파커) OFS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합시다”라고 클라라가 아그네스에게 말하였듯이,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들에게 끝임 없이 선물을 주시니 우리 프란치스코들은 큰 기쁨으로 가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간격으로 우리 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 회에 깊은 영향을 줄 것이기에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것들에 관심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어 보아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이나? 바로 CIOFS(국제 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 온 **Instrumentum Laboris** (의안집), 교황 프란치스코의 **Fratelli Tutti** (교황의 새로운 사회 회칙), 그리고 총 회장으로 부터 온 2020년 크리스마스 편지입니다. 이 문서 하나하나가 독자적이지만, 재속프란치스코회에는 이 세 개가 하나의 목적을 보여주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서들이 바로 우리의 쇄신을 위한 여정의 표지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회의 완전한 쇄신을 향한 여정과 하느님께서 우리가 실현 성취하도록 마련하신 궤도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40여년 전 우리의 회칙이 공표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향상하게 해준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미래를 예견해 보는 모임을 통해 청년, 정의 평화 그리고 양성 위원회가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심사숙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전진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문서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던 말은 바로 **사목적 독창성(prophetic creativity)**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물을 통해 하느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사목적 독창성 없이는 우리 회의 쇄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와 열정을 쏟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목적 독창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 응답하는 혁신적인 행동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사목적 독창성의 스승이십니다. 그의 계시적인 말씀과 혁신적인 실행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Fratelli Tutti** (교황의 새로운 사회 회칙)에서 “창조하다”란 단어를 44번 이상 언급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기 (to be creative)를 명하고 계십니다. 총 회장의 크리스마스 편지에서도 “변화(회개)는 동기 부여와 수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목적이고 관조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라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는 사목적 독창성의 가장 좋은 모범이십니다. 성인께서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Instrumentum Laboris (의안집)에서는 사목적 독창성이란 용어가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바로 적용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자)** 으로 **“animate and guide (생기와 지도)”**란 이 두 단어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생기있게 하고 지도해야 하는 섬김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단지 사무적인 일 혹은 관료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각 개인과 형제회를 재속 프란치스코 삶을 완전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이 깨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실현”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준 목적이며, 교황께서 여러 번 강조했던 우리의 소명입니다. 의안집에서도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목적 독창성이 필요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 (섬김의 지도자)로서 미래를 위한 사목적 독창성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회를 관리하는 매일 그날의 사무적 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상응하고, 그 시대에 열린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삶과 형제회의 발전을 돕는 새로운 방법을 항상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의안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제회와 수도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교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해봅시다. “의안집에서 말하는 이 사목적 독창성이 서번트 리더 (섬김의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분명 초점은 지도자들에게 두고 있지만, 모든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원 31 조에 쓰여있는 “회원은 자기가 속한 형제회와 세계의 모든 형제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제적 생활의 공동책임자이다. (회원 31.1)”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단위형제회 뿐만 아니라 수도회 전체를 위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안집에서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공동책임을 깊이 인지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 -사목적 독창성의 시대로의 부르심- 에 응답합니다. 그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모두 서로 서로 그리고 하느님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제회가 열정, 기쁨과 희망으로 더욱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참여로 더욱 더 열성적인 서약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회가 더욱더 강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형제회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회로서 뿐만 아니라 각 개인으로서도 모든 가능성을 충만히 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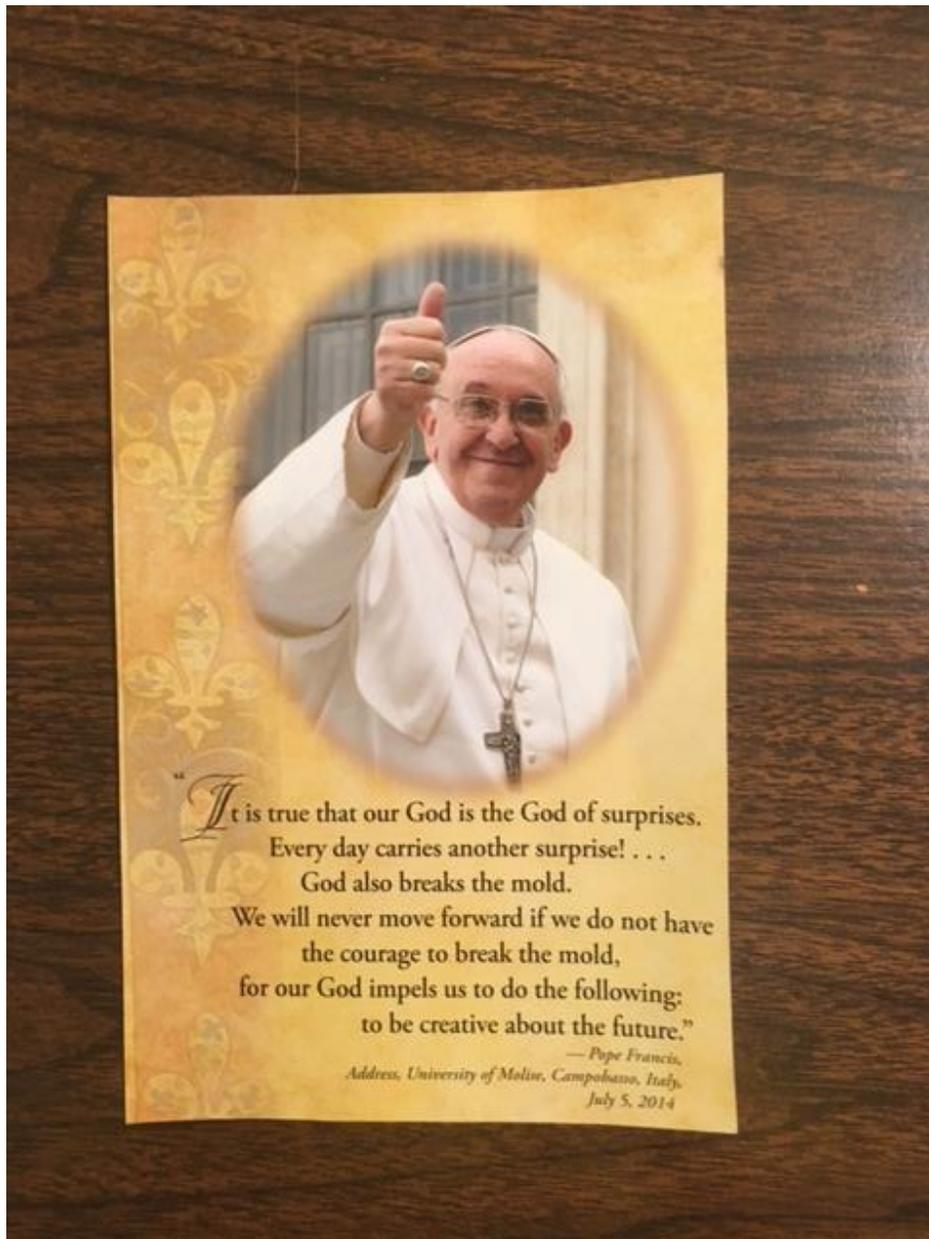
이 세 개의 문서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같이 이 문서들을 연구합니다. 여러분의 각 단위 형제회에서도 영속적 양성 과정에 이를 포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 화상 모임을 통해 단위형제회, 지구 형제회와 국가 형제회 차원에서도 이 세 가지 선물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서로 나누고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격렬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항상 그러하였듯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 전에 “자비의 해” 달력에 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문구에 감화를 받아, 그때부터 그 사진을 오려 내 사무실 문 옆 벽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교황의 “엄지 척”은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느님이심이 틀림없습니다. 매일 다르게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틀을 깨어 부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더 앞으로 나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서는 제자직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향하여 독창적이기를....**”¹

상당히 예언적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목적 독창적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래의 사진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¹ (Address, University of Molise, Campobasso, Italy, July 5, 2014)